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에 대한 이용자 불만 해소방안 탐색

2017. 08. 21

권진아, 김도현, 김종열, 김태현

지도교사 : 이예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에 대한 이용자 불만 해소방안 탐색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602 권진아, 1603 김도현

2602 김종열, 2603 김태현

1. 탐사의 필요성

가. 연구 동기

계룡산에 대해 많은 기사들을 찾던 중, 계룡산이 등산객에게 부당하게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 기사의 댓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추가의 조사를 통해 계룡산 국립공원 뿐 아니라 다른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나. 연구 목적

1) 계룡산 국립공원의 문화재관람료와 동학사간의 관계

가) 국립공원의 문화재관람료

환경부는 국민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2007년 1월 1일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계룡산 국립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3000원(동학사 방면, 성인기준)을 지불해야 한다. 2007년 이후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재관람료 때문이다. 문화재 보호법 제 49조에 의해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내에 국가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동학사가 문화재관람료를 등산객들에게 징수하고 있다.

2) 계룡산 국립공원의 문화재관람료와 등산객들의 불만

가) 국립공원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등산객들의 불만

등산객들이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유는 문화재를 관람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산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3년 문화재 관람 목적이 없는 등산객이 천은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 등산객이 전남 구례의 지리산에 위치한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찰들은 문화재입장료를 고수하고 있으며 계룡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동학사 또한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나) 등산객들의 불만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등산객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 때문이다. 특히 동학사의 경우 계룡산 국립공원의 동학사 제1코스와 제 2코스 모두 동학사 토지를 지나간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남매탐을 관람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계속되는 등산객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방안 탐색하고자 한다.

2. 탐사 과정

가. 탐사 방법

1) 계룡산 동학사의 관람료 징수에 대한 사전조사

탐사 시 기상악화나 행사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사찰 측과 등산객 측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탐사 전 과거 일어났던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태와 상황을 알아야 하며,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사전조사를 할 때에는 출처가 믿을만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어느 한 입장에서 바라본 자료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자료를 구분하여 기록해두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조사한 자료를 너무 믿으면 안 되며, 믿을만한 정보인지 다시 한 번 직접 탐사를 통하여 인터뷰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뀐 법률이나 상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2) 계룡산 동학사 관람료 징수의 의견에 대한 인터뷰

그저 사전 조사를 통하여 양측의 의견을 완벽히 숙지하고 계룡산 동학사에서 관람료 징수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이 표본 집단 보다는 더 이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관리자나 스님, 또는 문제를 겪어 보았던 등산객들 에게 인터뷰를 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논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위 1)의 결과에 대해 분석 결과 사찰 측에서는 2007년 정부에서 모든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한 뒤 문화재 보존/보수에 관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 직접 관람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때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지불해야하는 등산객과의 마찰이 생긴 것인데, 이에 우리는 현장에서 관람료에 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등산객을 만나보기는 힘들 것 이라고 판단하여 계룡산 홈페이지에서 두 의견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사무실과 동학사를 인터뷰 장소로 지정한다. 또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탐구를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그리고 인터뷰대상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질문을 다듬으며 가장 중요한 질문과 추가적으로 받아야할 정보가 담긴 질문들 간의 순서를 배치한다. 다음의 표는 우리가 만든 사무실과 동학사에서 인터뷰 할 질문들을 나열한 것이다.

질문 순서	사무실에서 인터뷰할 질문
NO.1	기존에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이 산을 등산할 때 이용료를 지불하였나요?
NO.2	각각의 사찰의 토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NO.3	국립공원의 영토와 사찰의 토지가 겹친 곳에서 서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NO.4	등산로에 입장할 때에 받는 이용료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무엇이 있나요?(답이 '등산로에는 없다'일 경우 -문화재가 등산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찰 안데 있다면 굳이 여기서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NO.5	문화재 유지용도를 제외한, 입장료가 필요한 다른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순서	동학사에서 인터뷰할 질문
NO.1	스님께서서는 동학사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NO.2	-> 동학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문화재에 대해 어떠한 관리/보수가 되는지) -> 동학사의 역할/책임 -> 입장료를 문화재를 관리/보수 하는 데에 쓰시는 건가요? +입장료를 동학사가 받는 대신에 동학사가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면, 문화재청 쪽에서의 지원은 없나요? +다른 곳에 쓰이지는 않나요?(문화재의 홍보 등)

	-> 문화재 관리/보수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는지요?
NO.3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으므로 돈을 내지 않겠다는 관람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동학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렇다면, 입장료를 받는 곳을 해당되는 문화재에 최대한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 이전하게 된다면 손해를 많이 보는지? -> 입장료를 받는 곳을 이전해보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나. 탐사 일정 및 경로

날짜/요일	시간	장소	한일
8월21일/월요일	9:30~10:00	계룡산 동학사	이동
	10:00~12:00	동학사 앞 카페	1. 국내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와 함께 일어난 사찰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전조사 2. 계룡산 동학사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사전조사 3. 계룡산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뷰 할 곳을 선정 4. 사무실과 동학사에서 인터뷰할 질문거리들을 작성
	12:00~3:00	사무실/동학사	1. 2팀으로 나누어 사무실과 동학사까지 이동 2. 인터뷰 진행 후 다시 하산
	3:00~4:50	동학사 앞 카페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
8월22일/화요일	9:30~10:00	계룡산 동학사	이동
	10:00~2:30	동학사	1. 인터뷰 재진행 2. 갈등 해결방안 생각
	2:30~11:30	소학습실	1.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2. 책자, ppt, 안내판, 포스터 만들기
8월23일/수요일	8:30~3:00	본관 5층 S513	발표준비 및 산출물 정리

3. 탐구 결과

가. 국립공원과 동학사의 의견

1)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계룡산 입구에서 지불하는 요금의 명칭은 입장료가 아닌, 문화재 관람료라고 불리며, 문화재 보호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수입을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¹⁾ 또한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10%가 사찰의 토지이기 때문에 등산로가 사찰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존재 하며, 사무소에서는 10%에 해당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또한 관리하는데, 사찰에는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파괴로 인한 마찰은 극히 드무나, 사찰의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사무소와 사찰 간의 협의를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추가로 법률적인 사찰의 권한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답을 구할 수 없었다.

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920>

2007년도 이후 정부의 지원이 끊긴 이후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람료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2) 동학사

동학사는 당시 8월 22일 사찰의 불교 행사가 잡혀 있었고, 이로 인해 스님과 약속한 면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

3) 인터넷으로 조사한 입장료의 타당성

계룡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국립공원이 있는 반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그 중 한 가지 예시인데, 북한산 국립공원과 계룡산, 지리산 국립공원의 차이점은 국보급 문화재와 보물의 개수의 차이인데, 북한산 국립공원은 국보가 없고, 보물이 7개가 있는 반면, 계룡산은 국보가 2개, 보물이 1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 따라서 북한산의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 반면 계룡산은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법률상 합당하며 그 근거는 계룡산에 위치한 문화재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³⁾

4) 관광객들의 불만

관광객들 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찰이 주가 아닌 등산이 목적인 등산객들이며, 입장료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입장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사전에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등반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입구까지 입장한 후 예상치 못한 입장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탐구한, 계룡산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등산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입장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대안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매표소를 이동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매표소를 동학사 근처로 이동시키면 등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고 등산만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찰로부터 300m 이내 사찰관할 신축이 가능하다는 법안이 존재하고⁴⁾, 동학사로 가는 길목에 미타암 등의 사찰이 있기 때문에 매표소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매표소를 입구에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국립공원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 또한 300m를 넘어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나, 이는 환경파괴를 야기하므로 보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자를 제작하여 등산객들에게 사전에 등산로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고, 이것이 이번 탐사의 결론으로써 입장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1) 안내판 디자인

2) <http://www.knps.or.kr/public/main/contents.do?menuNo=7030051>

국립공원 별 보유 문화재 현황에 관한 기사이다.

3)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0%EB%8B%A427749\)](http://www.law.go.kr/%ED%8C%90%EB%A1%80/(2000%EB%8B%A427749))

공원입장료 분배청구에 대한 판례이다.

4) <http://news.donga.com/List/3/0309/20120426/45799422/1>

국립공원 사찰 188곳 개발허용... 300m 내 입장료 징수가능



그림 2 안내판의 모습

그림2의 안내판은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로 무료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용자들이 멀리서 안내판을 볼 때, 가장 필요한 정보인 등산로에 안내라는 점을 먼저 전달하기 위해 제목을 가장 큰 글씨로 작성하였고, 배경색과 가장 상반된 색이 되어 눈에 띄도록 디자인 하였다. 또한, 갈림길에서 각 길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줌으로써 길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2) 책자 디자인



그림 3 책자 앞면의 디자인



그림 4 책자 뒷면의 디자인

위는 이용자에게 제공될 책자의 앞, 뒷면의 디자인이다. 책자의 앞면에는 크게 세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책의 표지로서 동학사의 사진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동학사의 입장료에 대해 다루었는데, 현재의 입장료가 형성된 배경, 입장료를 내고 싶지 않을 때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등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동학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입장료의 필요성을 더해주었다. 뒷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소개했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에 표시해주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부터 계룡산까지 오는 경로도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주면서 계룡산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계룡산 국립공원이 관광지로서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제언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하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탐색하면서 두 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입장료가 어디로 쓰이는지는 알았지만 현재 문화재 관리가 확실히 잘 되고 있는지 현재의 입장료가 합당한지는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만약 스님과의 인터뷰가 성사되었다면 더 좋은 탐구가 되었을 것 같다.

5. 활동 후기

권진아 : 계룡산 국립공원의 문화재관람료와 동학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탐구하면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등산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하고 또 다른 코스를 찾는 일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이예찬 선생님, 선배님과 함께 인문자연탐사를 하며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김종열 : 계룡산이라는, 인문적, 자연적 요소가 겹으로 쉽게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우연하게 사람들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입장료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생의 신분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 초기에 명확하지 않았던 주제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최종적인 목표를 구체화함으로써 차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인문자연탐사의 취지를 달성한 것이라 생각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3일 동안 부족한 선배와 함께 활동해준 진아와 도현이에게 감사하고 중간 중간 방향을 잡아주신 이예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김태현 : 계룡산의 입장료에 대해 분석하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 알아보면서 문화재의 소중함과 문화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또, 레인저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에 많은 일들이 얹혀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